국가폭력 피해 억울한 사연 70년만에 풀릴까

진실화해위, 광주·전남 항일운동 희생 등 148건 조사 착수

광주·전남지역에서 국가 폭력에 피해를 입은 지역민들의 억울한 사연이 풀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최근 완도·진도·해남 등 광주·전남에서 한국전쟁 당시 발생한 민간인 희생 사건 등 148건에 대한 조사에 착수키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21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제17차 위원회를 열고 총 275건의 진실규명 신청사건에 대한 조사 개시를 결정했다.

이 중 절반 이상인 148건이 광주·전남의 사건이라는 점에서 지역민들은 현대사의 비극에서 국가폭력에 희생당한 지역민들의 명예 회복과 진상 규명의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있다.

주요 사건으로는 ▲완도군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 39건 ▲진도군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 51건 ▲해남군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 56건 ▲전남운동협의회 항일독립운동 1건 ▲광주학생운동 1건 등이다.

이중 완도에서는 1949년 10월부터 한국전쟁 발발 후 1951년 1월까지 완도군 완도읍·고금면·노화읍·보길면·소안면·약산면 등에서 군경의 부역혐의자, 좌익세력 협조자 색출 과정에서 40명의 민간인이 희생된 사건에 대하여 30명이 진실규명을 신청했다. 1950년 10월 1일부터 완도읍을 중심으로 완도군을 수복한 완도경찰은 1951년 1월경까지 부역혐의자 및 좌익세력협조자 색출 작전을 진행하였고, 이 과정에서 완도지서에 체포되거나 자수해 구금돼 있던 다수의 민간인이 적법한 절차 없이 사살·수장됐다는 것이다.

진도에서도 진도읍·군내면·고군면·의신면·임회면·지산면·조도면 등지에서 군경의 빨치산 토벌작전 수행과 인민군 및 좌익세력 협조자 색출 과정에서 70명의 민간인이 희생된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을 신청했다.

지난 1948년 10월 ~ 1951년 5월 해남군 산이면·송지면·마산면·현산면·화산면·해남읍·북평면·옥천면·화원면에서 군경의 빨치산 토벌작전 수행과 빨치산 협조자 색출 과정 등에서 군경에 희생되거나 상해를 입은 사건에 대해 진실을 밝혀달라고 해남에서도 신청에서 이어졌다.

항일운동 당시 일제에 의해 희생된 2건의 사건도 조사가 개시된다. 1928년 광주고보에 입학한 이후 동맹휴업에 참가했고, 1929년 항일 학생운동단체인 독서회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1929년 광주학생운동에 참여한 이모씨에 대한 조사도 시작된다. 이씨는 지난 1930년에는 백지동맹을 주도해 퇴학 처분을 받았고, 1933년 5월에 해남군 북평면 성도암에서 전남운동 중앙지도 기관을 결성하고 선전부 책임자로 선임됐다. 이후 전남지역 운동 지도기관인 '전남운동협의회' 사건으로 2년 6개월간 복역했다.

1929년 광주학생운동 당시 광주공립농업학교 학생이던 정모씨도 조사목록에 포함됐다. 정씨는 1929년 10월에 독서회 조직에 관여했고, 광주학생운동에 참가한 협의로 치안유지법 위반 및 보안법 위반으로 체포돼 1930년 10월 18일 광주지방법원의 1심 재판에서 징역 3년 6월, 1931년 6월 13일 대구복심법원의 2심 재판에서 최종적으로 징역 1년의 판결을 받았다. 1990년에 애족장을 받은 김남철 씨의 공훈록에 정씨와 함께 광주지역의 항일학생비밀결사인 독서회 모임을 조직하였다는 내용이 적시되어 있다는 점에서 진실화해위가 신청을 받아들였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전남 화물차 보행자 사고 최다는?

여수 한재사거리·광주 월산119 안전센터 인근 '불명예'

광주와 전남에서 화물차가 보행자를 들이받는 사고가 가장 잦은 곳은 여수 '한재사거리'와 남구 '월산119안전센터' 부근인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와 전남에서는 5년 간 화물차로 인한 사고가 1482건 발생, 235명이 숨지고 1420명이 중경상을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경기 광주 갑) 의원이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5~2020년 화물차와 사람 간 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남에서는 여수 한재사거리와 고흥읍 봉황2교에서 각각 8건의 화물차와 보행자 간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수 한재사거리는 지난 7월 승용차 탁송차량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시민과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 등을 치어 모두 5명이 숨지고 14명이 중경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한 곳이기도 하다.

전남지역 화물차와 사람 간 교통사고 다발구간으로는 여수 한재사거리와 고흥 봉황2교 부근(각 8건), 순천 아랫시장사거리(7건), 장흥 군민회관 오거리(6건), 목포 산정동 1040-211번지 부근(6건) 순이었다.

광주에서는 남구 월산119안전센터 부근이 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뒤이어 지산사거리, 남광주 고가차도 부근, 양동 태평교 부근 등이 각 5건이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화순 국화동산 예약제 관람 21일 화순군 남산공원을 찾은 관광객들이 꽃망울을 터트린 국화를 보며 가을 정취를 만끽하고 있다. 화순군은 코로나19로 '화순 국화향연' 축제를 취소하고 27일부터 11월 14일까지 관람 사전예약제를 운영한다. /최현배 기자choi@

전남 교육청, 학교 자율 종합감사 시범 운영

초·중·고 12곳 선정

전남도교육청이 감사행정의 혁신 일환으로 학교 자율 종합감사를 시범 운영한다.

도 교육청은 이를 위해 초등학교 4곳, 중학교 2곳 등 6곳을 자율 종합감사 시범 학교로 선정했다.

학교 자율 종합감사는 교육청 주도 방식의 감사에서 벗어나 학교 자체적으로 감사계획을 수립하고, 감사 결과에 대한 처분과 개선 등을 스스로 이행하는 감사 혁신 모형이다.

도 교육청은 자율과 예방의 감사 체계를 구축해 민주적인 학교 자치 문화를 구현하고, 감사 수감에 대한 학교 현장 부담 완화, 감사업무 효율성 증대를 위해 이 제도를 도입했다.

도 교육청은 학교 자율 종합감사 시범운영의 실효성을 증대하기 위해 오는 11월 5일까지 시범운영 학교 교직원을 대상으로 사전 연수를 실시한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방림2동 마을학당'서 공동체 움튼다

광주 남구 91억 투입…도시재생 학습 8개월 대장정

광주시 남구가 사업비 91억원을 투입해 방림2동에 기초생활 인프라 구축 및 노후주택 정비 등 도시재생사업을 추진 중인 가운데, 마을주민 중심의 공동체 문화를 꽃피우기 위해 8개월 코스의 마을학당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남구는 21일 "도시재생사업 종료 후 주민주도의 마을 관리와 주민 공동체가 중심이 되는 기반을 만들기 위해 오는 11월 중순부터 내년 6월까지 장기 프로젝트인 '방림2동 마을학당'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방림2동 마을학당'은 초기, 중기, 장기 등 시기별 목표달성 방식으로 운영된다.

남구는 초창기 도시재생 분야에 대한 주민들의 역량 강화 및 인적 인프라에 기반을 둔 거버넌스 구축에 주력할 방침이다.

이곳 마을에 거주하는 모든 연령층과 상인들을 대상으로 주민 워크숍과 사업 설명회를 개최해 마을학당 프로그램 및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낸다는 복안이다.

중기에는 선진지 견학과 벤치마킹을 통해 마을 주민들이 직접 창안한 아이디어를 도시재생 실행사업으로 집중 발굴하기 위한 시기로, 현장 체험 및 일자리 창출과 마을수익형 모델 발굴을 위한 강의 위주로 진행될 예정이다.

피날레를 장식하는 장기에는 그동안 마을학당 참여를 통해 양성한 마을리더와 신규 공동체 등의 조직이 마을공동체 사업의 구심점으로 전환되는 시기이다.

주민들이 발굴한 시범사업을 직접 실시하고, 주민제안 공모사업을 추진해 마을학당 사업의 성과 발표회를 끝으로 8개월 대장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e스포츠 최강자를 가려라

제1회 조선대 총장배 대회…28일까지 접수

조선대학교 링크플러스사업단과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온라인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League of Legends)를 통한 '제1회 조선대학교 총장배 e스포츠 아마추어 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대회는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돼 있는 문화예술 분야의 건전한 생활스포츠 문화 조성 및 관람 문화, 게임 문화 인식 개선을 위해 마련됐다.

대회는 29일 조 추첨을 거쳐 31일 예선전을 진행한다. 디스코드(Discord) 기반 토너먼트 방식의 온라인 예선 진행 후 준결승과 결승전은 오프라인 대결로 펼쳐진다.

예선은 단판으로 진행되며, 준결승부터는 3판 2선승제로 이뤄진다. 참가 자격은 게임 연령대에 따라 만 12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참가자는 오는 28일까지 모집하며, 신청은 포스터 QR코드를 이용해 디스코드(Discord) 앱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관람은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중계될 예정이다.

김춘성 링크플러스사업단장은 "이번 제1회 총장배 e스포츠 대회를 통해 지역의 e스포츠 산업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위해 조선대가 선도적인 역할로 나아가겠다"며 "대회를 통해 e스포츠 산업 전문가 인재 양성과 연관 산업 인프라 확대, 나아가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축제로서 자리매김하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